"중단 없는 진안 발전 이끌 것"

전춘성 예비후보, 민주당 진안군수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경선에서 전춘성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며 본선 승리를 향한 돛을 올렸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민주당 결선 투표 결과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전 후보는 이번 결선에서 이우규 후보를 누르고 당원과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군민과 당원의 위대한 승리… 단일대오로 본선 승리 정조준"

전 후보는 회견문을 통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이번 승리는 전춘성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중단 없는 진안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우규 후보를 비롯한 타 후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제는 경선 과정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다른 후보들의 훌륭한 공약들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오직 진안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핵심 공약: 진안 대도약을 위한 '3대 비전' 제시

전 후보는 '준비된 3선'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진안의 미래를 바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우선 "기본소득 지급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돈 버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업경제를 실현하여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글로벌 생태건강 치유도시'를 만들어 진안의 가치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 후보는 "지난 6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이러한 대도약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진안 100년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겸손하고 치열하게… 6월 본선 압승 다짐"

마지막으로 전 후보는 본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본선을 준비하겠다"며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100년 미래 진안'을 위한 핵심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군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후보는 "6월 본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만전

무주군, 특별 전담팀 구성… 27일 1차 지원 신청

무주군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접수와 지급을 위해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담팀은 총괄 지원, 복지 지원, 읍면 현장 지원, 기술 지원 등 총 4개 반 34명으로 꾸려졌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접수 준비와 보조 인력 배치, 선불카드 제작, 지원금 사용처 안내 스티커 제작 배포,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 등 민원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주군의 1·2차 지원 대상은 총 1만 8,900여명으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정 약 2,200명과 2차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1만6,700여명이 포함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 50만원, 소득 하위 70%는 25만원이며, 총지급액은 46억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에 달한다.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군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산간마을(상길, 남청, 원청, 진평)을 대상으로 골목 안전지킴이 사업인 '반딧불이의 사랑'을 운영한다.

어두운 골목 밝히는 '반딧불이의 사랑'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골목 안전지킴이 사업 운영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산간마을(상길, 남청, 원청, 진평)을 대상으로 골목 안전지킴이 사업인 '반딧불이의 사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지역특성을 살려 4~5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반딧불이의 사랑' 사업은 단순한 시설설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대표적인 지속 가능 봉사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 사업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시군 지속 프로그램으로 무주군 전역의 산간 오지마을과 어두운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들의 야간비행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무주의 상징인 반딧불이 로고를 형상화되는 태양광LED벽부등을 설치함으로써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동시에,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업의 추진 과정은 체계적인 민관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순찰과 주민접수를 통해 설치가 시급한 취약지점을 직접 발굴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팀 및 지역자생봉사단과 연계하여 설치 시작을 진행한다.

2026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회공헌 활동으로 태권도원(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운영관리(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했다.

최동철 센터장은 "반딧불의 사랑 사업은 재생 에너지를 통한 환경보호와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참여형 자원봉사 문화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무주만의 핵심봉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 관리와 민관협력을 통해 마을 구석구석에 안심의 빛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 주민 참여형 '적상 오색 동아리'로 공동체 활력

무주군이 주민 참여형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주군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상 오색 동아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적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중심이 돼 '오색단풍 이야기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분야는 체육·활동과 음악·공연, 예술 분야로 구성됐다.

체육·활동 분야에서는 그라운드골프와 노르딕워킹, 청소년 검토 등이 운영되며, 음악·공연 분야는 난타와 숟가락 난타, 취타대, 기타 연주, 풍물단, 청소년 국악 교실 등이 포함된다.

또 예술 분야에서는 리넨 인형과 천아트, 생활도예, 동네 작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각 동아리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약 70%는 적상면 주민으로 채워져 지역 밀착형 공동체 모델을 구축할 전망이다.

특히 참여 동아리는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재능기부와 환경정화, 생활돌봄 등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을 지원하고, 지역 인적 자원을 우선 활용해 경험 축적을 도울 계획이다.

또 사업 종료 이후에는 성과 공유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장수군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한누리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장애인식개선 작품 전시회,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홍보·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도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됐으며 전국 곳곳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몰' 가정의 달 전 품목 10% 할인 행사

진안군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에서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5월의 설렘, 미리 만나는 가정의 달 특별전'은 오는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청정 진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진안고원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선물로 인기가 높은 진안 홍삼 가공품을 비롯해 고품질의 흑돼지, 제철을 맞은 신선한 지역 농산물 등 전 제품이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 이번 할인 행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 소진 시 계획된 일정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초등학생 견학 이어져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생들의 견학 방문이 이어지며 현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홍삼한방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방범과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의 CCTV를 통합 운영해 지역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공무원 2명과 경찰관 1명, 관제요원 12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총 710대의 CCTV를 상시 관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진안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마이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돼 매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년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올해 견학은 4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날인 22일에는 진안초등학교와 장승초등학교 학생 43명이 참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